

## 손혜원 '목포 부동산' 파문 확산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술렁이고 있다. 20일 오후 목포진역사공원에서 바라본 목포 만호동 일대 모습. /목포=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민주 탈당 선언 ... "의혹 해소에 모든 것 걸겠다"

### 언론사·재건축조합 등 얽혀 진실공방 진흙탕 싸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하는 조짐이다.

〈관련기사 3면〉

손 의원은 20일 탈당을 선언하며 의혹 해소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양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또한 손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투기 의혹 파문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손 의원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중흥건설, 의혹을 보도한 SBS에 목포를 지역구로 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까지 끌어들여 함께 검찰조사를 받자고 하면서 진실공방이 혼탁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며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에는)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제 인생과 관련한 문제에서 제가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손

의원은 "문제위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떠나 있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손 의원은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목포 부동산 투기)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의혹 보도를 최초로 한 SBS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제가 걸 수 있는 이유를 다 걸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목포의 부동산 매입이 투기가 아닌 도시재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 손 의원은 이날도 "좋은 경관이고, 좋은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발견한 곳이 바로 목포였다"며 "국가가 나설 수 없다면, 이 정도 콘텐츠가 남아 있다면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이날도 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박지원 의원과 목포에 고층아파트 건설계획 관련한 분들과 검찰조사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또 "(내가) 목포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의향은 궁극하지 않느냐"며 질문을 유도한

후 "목포에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나 배신의 아이콘인 노회찬 정치인을 몰리지는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의 유세차를 함께 타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도 "SBS, 중흥건설, 조합 관련자들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검찰조사 꼭 같이 받자"면서 "누가 미꾸라지고 누가 곰인지 진검승부 한 번 가보자"고 밝힌 바 있다.

손 의원이 박 의원을 공격대성으로 삼은 것은 박 의원이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처음에는 손 의원을 두둔했다가, 추후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에는 "손 의원 측 부동산 매입이 투기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손 의원이 매일한 부동산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지난 18일 라디오에 출연, "손 의원이 저에게는 두 체를 샀다고 했다"며 "그런데 (언론 보도처럼) 토지 20개를 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 19일엔 "모두 속았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를 다 흐린다"고 손 의원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였다. 그는 이날 손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없음을 밝힙니다"라고 적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 검토 무안공항 활성화 치명타 우려

### 호남에 2개 국제공항이 균형발전? ... 합리적 판단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예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커가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전북이 원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 사업을 위한 예타(예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이 이달 안에 결정된다"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전북 익산 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찾아 입주기업인 등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예타 면제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새만금 신공

항의 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총리는 새만금 신공항에 대해 "특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10월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이호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2023년까지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날림공사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에서 '예타 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예타 면제가 가시권에 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새만금 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국가차원의 공항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호남권에 2개의 국제공항이 운영되는 것은 경제 타당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분석이다. 이는 두 공항의 수요가 겹치는 데다,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무안공항은 광주 등 충남 일부지역과

호남권 이용객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호남고속철도(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되면서 익산~무안공항 간 소요시간은 40여분에 불과해졌다.

특히 오는 2021년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고,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연장되면 유류·미주 노선의 항공기도 이·착륙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주공항이 포함 상태인 탓에 중국 관광객이 무안공항을 이용하면서 무안공항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공항 이용객이 많아지면 편의시설이 확충돼 공항 쓸림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새만금 신공항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기에서 나온다.

무안지역 주민들은 합리적인 국가정책을 주문했다. 하나의 권역에 두 개의 국제공항을 육성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2차 북미정상회담 2월말 개최 ... 회담 개최국 곧 발표

### 트럼프 "북한과 많은 진전"

### 스웨덴서 실무협상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국을 선정했으나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아마도 2월 말쯤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한 나라를 선택했지만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그것(2차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고, 나 역시 그렇다"며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전날 백악관에서 가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전날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 열리며, 회담 장소는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김 부위원장과 90분간 면담했다.

미국과 북한이 제2차 정상회담을 2월 말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측은 19일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북한의 최선외무성 부상(차관)이 지난 17일, 한국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 각각 스톡홀름에 도착한 데 이어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19일 오후 스톡홀름에 도착했다.

남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 대표들은 이날 오후부터 스톡홀름 북서쪽 50km 지점에 위치한 외딴 휴양시설 '하크홀름스프링 컨퍼런스'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각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율하는 '협상담판'에 들어갔다. 남북한과 미국은 오는 22일까지 3박4일간 3국 대표단이 참석해 협의를 벌이는 형식은 물론 북미간, 남북간 양자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황당한 광주시 수도 행정 ▶6면  
 KIA 안치홍 연봉 얼마나 될까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SWITCH TO

##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초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동남동) 20 (초음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저속7단), 복합회합유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sub>2</sub>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